

양묘사업 개선방안

충청북도 농정국 산림과 심태우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는 험벗고 황폐되었던 국토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 F.A.O등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산주를 비롯한 국민모두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정체라 하겠다.

이 중에도 특히 조림할 묘목을 잘 길러 공급해준 양묘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녹화 초기 짧은 시간 내에 많은양의 묘목이 소요되었을때 묘목을 생산해본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도 개발되지 않아 녹화조림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산림청)에서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 훈령으로 「종묘사업실시요령」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요령은 양묘사업의 기술적 문제, 수종별 시업기준, 시업공정, 묘령별 묘목규격, 검사, 수급에 이르기까지 묘목생산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단위 면적당 시비량, 농약사용은 물론 50여 조림수종에 대하여 수종별 파종량, 이식본수, 생산본수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기준을 정하였다.

예를 든다면 잣나무(2-2)묘목의 경우 m²당 120본 이식하여 96본(80%)을 생산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런 제도 속에서 전국의 양묘협회 회원과 산림조합에서 30여년 이상 반복되는 사업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묘목을 생산해 왔다.

지정양묘 생산이므로 판로에 걱정이 없고, 규격묘만 생산하면 되므로 더 이상의 투자와 기술개발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주변의 현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 지고 있는가?

양묘업계에서도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더 다양하고, 더 건실하고, 더 좋은 묘목을 국민과 산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리 경쟁력 있는 건실한 묘목이 요구되더라도 법과 제도가 허용치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

이다.

㎡당 120본 심어서 22cm이상 되는 묘목 96본을 생산해야되는 제도와 기준아래서 어떻게 더 건설하고 경쟁력 있는 묘목이 생산될 수 있겠는가?

묘목생산 경험 반세기가 넘는 양묘협회 회원과 산림조합, 그동안 쌓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감안할 때 계수적으로 정한 시업기준과 제도의 울타리를 걷어줄 때가 도래된 것 같다.

일정한 묘목의 규격을 정하고 양묘사업의 기계화, 단지화등 입업구조를 개선하고 집약관리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묘목을 생산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조림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일반농업의 결과는 1~2년이면 성공, 실패의 향방을 가름한다.

그러나 임업은 30~50년이 걸려야 한다. 그런만큼 임업에서 품질이 좋은 종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 어느것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중요한 종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종자를 채취해야할 채종림은 종자결실도 부실하거니와 높은 수고, 노령인부, 현실적으로 채종림에서 종자채취가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과연 채취한 종자는 어디서 채취한 종자이며 어디서 공급받는 종자일까?

우량한 조림용 종자의 채취를 위하여 지정한 채종림도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직접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형질이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도 모든 수종에 대한 채종원 채종림을 확대조성함은 물론 관에서 직접 지도감독하에 채취하여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